

## 인터뷰

## 보수 정치권 세대교체 “축적된 역사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”

문하령 기자 moonbym@khu.ac.kr

#. 미래통합당(통합당)은 지난 4번의 선거 동안 줄곧 뼈아픈 패배를 겪었다. 이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개혁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. ‘낡은 보수’를 쇄신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(비대위) 9명 중 3명을 청년 할당으로 채웠다. 그중 비대위 정강·정책위원장을 맡게 된 김병민(경제통상학 2000) 동문을 만나 통합당에 부는 변화의 바람을 가능해봤다.

지난 1일 출범한 통합당 비대위에 김병민 동문이 인선됐다. 정강·정책위원회를 이끌게 된 김 동문은 통합당이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을 직접 그려나 가게 된다.

김 동문은 “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한 역할을 맡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”며 “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정당, 그리고 국민의 삶을 앞서 챙기는 정당이 될 것”이라고 구체적인 정치상을 제시했다. 동시에 김 동문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“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는데 이는 양면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”며 “산업화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과정까지 공동체에서 축적된 역사를 존중하며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김 동문은 지난 2010년 28세의 젊은 나이로 서초구 의회에 입성하며 정치 활동에 입문했다. 이는 고승덕 전 의원의 인연이 계기가 됐다. 지난 2007년 우리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김 동문은 대동제에 고 전 의원을 초청해 명사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. “당시 고승덕 전 의원이 학생 공동체 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눈여겨본 것으로 안다”며 “이후 기초의원 후보공천을 제안받



김병민(경제통상학 2000) 동문은 지난 2007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을 지냈다.

(사진=김병민 제공)

게 됐다”고 밝혔다. 이때 최연소 기초 의원으로 당선됐던 김 동문은 “이후 청년 기초의원 수가 늘었다”며 “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된 것 같아 감사하다”고 덧붙였다.

그러나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듬해 김 동문에게 뜻하지 않은 재난이 덮쳤다. 지난 2011년 한국 중부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우면산 주위에서 산사태가 연달아 일어난 것이다. 김 동문은 “무너져 내린 흙이 도로와 아파트를 덮쳐 16명이 사망했던 재난 상황이었다”며 “한 달여간 피해 복구 작업에 매달렸다”고 회상했다. “현장을 수습하다 물리적 한계를 느껴 우리학교를 통해 봉사 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”면서 “이때 군 인력과 장비도 투입됐는데 철수 전날에 읍소하시피 간청해 며칠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”고 혼란스러웠던 당시

상황을 전했다.

이때 경험으로 ‘미래에 대한 준비’와 ‘공감 능력’은 김 동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됐다. “정치인은 누구보다 먼저 미래를 생각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또 “당장 4차 산업 시대에서 어려움을 겪을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”이라며 “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공감하며 조금이나마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”고 설명했다.

김 동문은 교수, 시사 평론가, 방송인, 유튜브 등 다방면에서 활동해왔다. 김 동문은 “고승덕 전 의원이 국회의원, 변호사, 교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”며 “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연결고리를 찾으면 조금의 시간과 노력으로 여러 활동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 김 동문이 찾은 연결고

리는 ‘선한 영향력’이었다. “의정 활동이 직접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 외 활동은 간접적으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
다양한 분야를 오갔던 경험은 김 동문에게 큰 자산이 됐다. “작은 일이 쌓이며 점차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”며 “지방의회의원으로 4년을 지내며 지역 언론과 밀착하며 쌓은 방송 경험이 전국 언론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자연스럽게 만든 것 같다”고 말했다. 김 동문은 이러한 신념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뛰어 들었다. “방송 출연도 우연히 나가게 된 토론 방송이 계기가 됐다”고 말했다.

의정 활동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기도 했다. 지난 해까지 우리학교 행정학과 객원 교수로 교단에 섰다.

김 동문의 강의는 한 주 동안 가장 주목받은 시사 문제로 시작된다. 김 동문은 “제가 가진 강점을 살려 학생들과 시사 문제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”며 “방송에서 보수 패널로 활동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특정 주제를 이야기 할 때는 양 측의 논거를 모두 설명해 판단의 몫을 학생에게 맡긴다”고 설명했다. 실제로 강의평에서 학생들은 이 점을 높이 평가한다. 이에 대해 김 동문은 “강의가 시사 문제에 대한 토론과 지방 자치를 직접 실현하는 조별 활동으로 구성돼 있어 좋아하는 친구들은 좋아하지만, 또 싫어하는 친구들은 부담스러워한다”고 겸손함을 보였다.

간혹 사제 관계를 넘어 인생 선배로서 정치인이 되기 위한 방법을 묻는 학생들도 있었다. “청년 기초의원의 경험을 묻는 후배들이 많았다”며 “교수보다는 선배로서 다가와 도움을 구하는 것 같다”고 말했다. 김 동문은 청년 정치인을 꿈꾼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구든지 찾아가 두드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. “청년의 정치 참여가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 정당 내 청년 정치인도 소수”라며 “정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”고 말했다.

김 동문은 마지막으로 “우리학교 본관에는 ‘그대 살아 숨 쉬는 한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하라’는 문구가 쓰여 있다. 불혹을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도 2006년 국토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본관에서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르던 장면이 잊히지 않는다. 그 문구대로 500km가 넘는 길을 끊임없이 나아갔고, 지금도 동문들을 만나면 건배사는 어김없이 그 문구다. 학교 구성원 분들도 그 문구대로 살아 숨 쉬는 한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하길 바란다.”고 애교심을 비쳤다.

## 코로나-19 극복

## “힘을 내요! 경희 동문!” 이벤트

경희의료원이 당신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.



기간 : 2020년 6월 30일(화) 까지  
대상 : 경희동문 본인 및 가족  
우대혜택 : 모든 건강검진 프로그램 50% 할인  
문의 : 02-958-8711-3  
(경희의료원 본관 2층 동서건강증진센터)

[우대 프로그램 안내표]

	우대금액 (여성 기준)	프로그램 구성 (여성 기준)
기본건강검진	29.5만원	기초검사, 혈액검사, 정밀혈액검사, 호흡기계검사, 심혈관계검사, 소화기계검사 (위내시경, 복부초음파), 치과검사, 한방검사, 여성의학검사
그린검진 (30대)	52.5만원	기본건강검진+갑상선초음파, 유방초음파, 부인과초음파, 자궁경부암, 수면위내시경, A형간염
블루검진 (40대)	67.5만원	기본건강검진+갑상선초음파, 유방초음파, 부인과초음파, 복부CT, 수면위내시경
골드검진 (50대)	90만원	기본건강검진+관상동맥CT, 흉부CT, 심장초음파, 경동맥초음파, 갑상선초음파, 유방초음파, 부인과초음파, 골밀도검사, 수면위내시경

※홈페이지(www.khmc.or.kr)에서 더 많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## 2020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

2020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 방법 및 강의내용 개선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- 기간 : 2020.06.15(월) ~ 06.30(화)
- 대상 : 서울·국제 캠퍼스 재학생(학부 및 대학원생)
- 대상강좌 :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
- 성적 열람 및 공식 기간 : 2020.7.7(화) ~ 7.9(목)  
2020.7.16.(목) ~ 7.17.(금) 17:00 (집중이수 대상강좌)
-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성적조회 기간
  - 강의평가 실시 학생 : 2020.06.22.(월) ~ 06.30.(화) / 07.06.(월)  
2020.07.16.(목) ~ 07.17.(금) (집중이수 대상강좌)  
※ 성적입력이 완료된 강좌에 한함
  -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: 2020.07.07.(화) ~ 07.09.(목)  
2020.07.16.(목) ~ 07.17.(금) (집중이수 대상강좌)

- 강의평가 실시 방법
  - 1) 경희대학교 포털 접속 → 수업/성적 → 수업 → 강의평가 클릭
  - 2)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의 [작성/조회] 클릭
  - 3) 화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,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(자유의견)을 입력하고, 하단의 [저장] → [제출] 클릭 (제출 후 수정 불가)
  - 4) 강좌목록 화면에서 평가를 마친 과목이 [평가전]에서 [평가완료]로 변경된 것 확인
  - 5)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[작성/조회]를 클릭하여 조회
  - 6)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
  - 7)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[평가완료]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화면 하단의 [로그아웃]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
  - 8)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의 강의평가 담당자에게 문의  
※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됩니다.

교무처 학사지원팀